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위대한 출발

(스가라 1장 1 - 6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놀랍게도 조국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그들의 모든 죄가 씻겨져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가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라서의 내용에는 환상이 많아서 해석이 매우 난해하지만 동시에 기록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파사의 다리오 왕(주전 521-486년) 2년 선지자 스가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라서는 동시대에 활동한 종들이 예언한 말씀으로서 스가라서와 학개서는 함께 언급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스가라서를 학개서의 부록, 혹은 주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유대 땅으로 귀환한 사람의 수가 사만 여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 스가라였습니다. 학개서는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므로 죄를 더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스가라서를 사랑해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와 독일어 주석을 쓸 만큼 스가라서를 귀히 여겼고, 요한 칼빈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평탄케 하시듯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장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라고 스가라서를 자주 인용하여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스가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27명이나 있을 만큼 스가라는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라서 2:4에는 소년 스가라라는 말로 보아 그는 귀환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 23:35). 여기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는 베레갸의 아들 스가라로 그는 여호야닷의 아들 스가라 (대하 24:20, 22)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스가라서의 1-8장과 9-14장까지의 기록자가 다르다고 말하며 후반부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가라서 11:12-13은 가롯 유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9-10에서 이 말씀은 인용하며 이것은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스가라서와 예레미야(18장)의 말씀을 함께 인용한 것입니다.

1.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스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과거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내리셨고,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 왕국에 경고를 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듯 했으나 다시 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니다. 유대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학개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먼저 물질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학 2:15-19). 이처럼 학개가 물질적인 복을 말한다면 스가라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만 회개를 요구하고 자신이 회개의 대상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과거의 심판은 경고장이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이 말씀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학개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스가라의 예언을 듣고 더 깊이 회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가라 예언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6월 24일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먼저 섬겼습니니다.

학개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먼저 물질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학 2:15-19). 이처럼 학개가 물질적인 복을 말한다면 스가라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6절).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조상들은 지나갔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 5:18).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위대한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가 되시고 감동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 찬양대 세미나 열린다

5월21일(금)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올해 임명받은 찬양대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2004 찬양대 세미나가 열린다. 찬양대원은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더욱 신령하고 은혜롭게 하는 바 항상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 이런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원들을 위해 이번에 열리는 찬양대 세미나는 특별히 연세대학교에서 협동 교목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승남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진

행하게 된다. 찬양대 세미나에는 2004년 각 찬양대의 대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찬양대원과 지휘자 반주자들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찬양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되도록 기도한다. (강사 소개는 4면에)

중등부 부모님과 하는 집회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5월23일(주) 주일1부 예배후 501호

중등부에서는 5월23일 주일1부 예배 후에 501호실에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집회를 갖는다. 학부모를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임을 알도록 하고 믿지 않는 가정

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이번 모임에 모든 중등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란다.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 1주 앞으로 다가와 최종점검 17일(월) 새벽 6시 15분 · 특별 새벽기도한다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KIMCHI 신학 세미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중에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일 104호 회의실에서 기도회와 회의를 계속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주를 개회를 위한 최종점검을 하는 주일로 삼기로 하였다. 특히 17일(월) 새벽 6시15분 502호실에서 교역자, 준비위원 전원 연석회의가 있다. 한편 금번 김치 세미나에도 구석 구석 성도들의 봉사

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미나 기간중에 나눔의 장이 열리는 만큼 성도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쓸만한 물건을 '나눔의 집'에 기증하여 참석자들이 구매했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준비위원회는 요청하고 있다. 24일(월)부터 시작되는 김치 기간동안 온 교회 성도들은 참여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로 참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5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을 한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 앞에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5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회는 성경통독 기념으로 교회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세트를 드리고 있다.

5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펠사> 1회 한길동 집사(12교구)
- <3독> 최금자 권사(8교구)
- <2독> 이웅선 장로(2교구) 임인숙 권사(3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김대호 장로(8교구)
한길동 집사(12교구)
- <1독> 오영철 집사(8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이봉선 집사(8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홍창배 집사(12교구) 오형철 집사(12교구)
김대웅 집사(12교구) 이영인 권사(12교구)
김윤수 성도(청년부) 이상 15명

금주의 성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출 2:9-10)

Pharaoh's daughter said to her, "Take this baby and nurse him for me, and I will pay you." So the woman took the baby and nursed him. When the child grew older, she took him to Pharaoh's daughter and he became her son. She named him Moses, saying, "I drew him out of the water." (Exodus 2:9-10)



12차 KIMCHI 세미나 참가국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베트남 편-



월남 전쟁은 우리에게 베트남이란 이름을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베트남은 잘 알지 못 하는 먼 나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사실 베트남은 알면 알수록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둘 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모두 남북이 나뉘어져 수 십 년 간 대치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중 유일하게 우리와 같은 공물반점이 있는 민족이며 끊임없이 중국과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항거한 나라이다.

이렇듯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지만 한국은 월남전을 통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친구로서의 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큰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베트남 안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바람이 베트남에도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이런 호의적인 태도는 현지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환영 받을 만하다.

여타 동남아시아국처럼 베트남 역시 기독교의 선교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통한 선교활동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 물론 베트남에도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종교가 사회주의 사상을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당국의 기본방침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란 사실상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당국의 압박에도 지하교회의 활약은 더욱 대단해지고 있지만 직접 선교활동은 현지인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하기 십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현지 한국인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현지사정을 잘 알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과전되는 한국선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 덕에 한국에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된 베트남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한 선교에 큰 호응을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좋은 징조이다.



▶ 수도 호치민 시내 풍경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선 배타적인 베트남이 천주교만은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베트남의 천주교인은 필리핀, 한국에 이어 아시아 3위를 차지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과거의 영향으로 불 수도 있지만, 공산화 이후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 정부에 동조하게 된 천주교 지도자가 약 99%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베트남 정부는 한국 교회가 베트남 교회를 직접 도우는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지하 교회에 대한 탄압도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베트남의 교회들이 그들의 후학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받쳐줄 든든한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고은실(편집부)

천국일꾼 양성 - 사랑부 10년 근속 모범교사상을 받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관모 집사
(사랑부 교사)**



지난 번 총회로부터 10년 근속 모범교사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보니 사랑부를 섬긴지도 어언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며 저보다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적으로 사랑부를 섬기시는 교사들이 받아

야상입니다.

지난 93년에 서울교회를 출석하면서 같은 다락방의 김홍두 집사님의 권면을 받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되었던 사랑부 봉사가 벌써 12년이 넘어갑니다. 내 아이들이 남긴 음식도 먹지 못하는 내가 장애우들을 어떻게 섬길지 걱정을 하면서 서울교회 논현동 성전의 사랑부실을 들어 서던 첫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을 처음 대면한 날 그들을 보며 울컥 눈물이 났던 일이 생각났

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다른 어떤 아이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일 뿐입니다.

올해로 열 살이 된 솔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서울교회에 온지 6년이 된 솔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아이로 주몽재활원에 있으나 연고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솔이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예쁜 소녀입니다. 제가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8살 짜리 송이는 이제 20살 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집에 며칠 머물렀던 송이는 지금도 만날 때마다 아저씨(남편)가 보고 싶다며 안부를 묻는 정이 많은 아가씨입니다.

10년 근속상을 받으니 여러 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그들의 순순함과 맑은 영혼에 마음이 끌려 힘든 줄 몰랐고, 오히려 제가 그들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과 선생과 학생이 아닌 혈육처럼 소중한 사이가 되었고 이는 함께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랑부 교사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장애우들을 섬기며, 교회를 왔다 돌아가는 길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언제 싹들지 모를 복음의 씨를 저들의 마음에 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라도 사랑부의 장애우들을 보시면 사랑의 미소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해주 시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최인애(고등부회장)



제가 고등부에 다니는 동안 저를 위하여 격려해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

고 또 회장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위로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고등부에 올라왔을 때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아 고

등부를 다니지 말자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고등부 일에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로 적응을 잘해서 지금처럼 고등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선생님들은 저에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또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도해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따뜻한 가정

최병열 집사(2교구)



5월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다. 계절로는 "계절의 왕"이라하며, 꽃으로 말하면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며, 어린이들은 "어린이 세상"이라고도 하고, 교회 절기로는 "꽃주일" "아버지 주일" "청년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꼭 차 있다.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가족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가정은 심장이다." (아내) "가정은 실천 하는 곳이다." (장남) "가정은 나누는 곳이다." (장녀) "가정은 쉬는 곳이다." (차남)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가정은 사랑 하는 곳이다."고 하셨다.

이런 여러 말들을 나누면서 정말 감사를 드렸다. 각기 가정을 생각함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다.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그 속에서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

진정한 가정은 따뜻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유희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한 마디의 말은 자녀를 따뜻하게 함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아빠 엄마에게 자녀가 던지는 말 한 마디는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다. 심장은 따뜻함의 상징이요,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하니 그 실천장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니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여긴다.

기도 속에 있는 그 따뜻함, 그 회개와 눈물, 그 감격, 그 기쁨이 가정에서 다시 살아 날 때, 우리 모든 가정은 따뜻한 5월에 활짝 핀 장미처럼 화사함과 향기로운과 아름다운이 넘치리라고 생각한다.

만민에게 전도

고통 가운데 사는 용천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송명학 성도 (디아스포라)



이 시간도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용천의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 밖에서는 봄날의 쌀쌀한 기운을 지니고 소리 없이 내리던 보슬비가 맞고 따스한 5월의 햇살이 푸르른 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곳의 푸르른 5월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용천의 부모, 형제들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 하나의 행복을 속죄하며 죄인 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서 자란 고향땅은 그다지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용천역 폭발사고로 또 수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애통하고도 답답한 마음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그들인데 또 크나큰 재앙을 만났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도 용천지역의 어린이들은 병원의 침대 위에서 상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쥐어 잡고 먹을 것을 달라고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 박광일 전도사의 끈질긴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3년간 살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 전도사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고통만을 주십니까?" 저의 질문에 박 전도사는 늘 이런 대답을 반복해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고 고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드는 도서관에서 내일 강의시간에 제출해야 할 과제물을 작성하고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태양은 나에게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며 나는 언제나가는 통일된 이 강토에서 남, 북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으며 함께 만날 그 날을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용천의 부모, 형제들에게도 하루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원해 봅니다.



편지왔어요 - 선교지 소식

방기에서 온 소식

문형숙 선교사

사랑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면 승리가 있기에 주님을 더욱 더 붙들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연초 40일 새벽기도 이후 성경통독을 겸한 76일 새벽기도회의 23일이 지나갔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이 참석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자라가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불어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부흥의 불씨와 헌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과 성벽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부가 아니고 혼자 일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고통의 땅에 찬양을 일으키는 것과 중앙아프리카에 처음 들어올 때 받은 이 사야 61:11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며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순간마다 엘사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두움이 몰려올 때도 지존자의 날개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방기 신학교 안에 제가 특별히 멘토링하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주님께 쓰임 받는 재목이 되어 아프리카 불어권의 무너진 단의 보수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사역의 비전을 가진 가봉 학생- 실베르, 로뒤알, 중앙아프리카 학생-뤼켄, 국제 복음주의 학생 선교회 IFES의 중앙아프리카 리더인 막심, 성서번역자 시몽, 신학교 총무처장 필립 목사님, 마다가스카르 사람으로 사모학교 교장인 마르셀린, 콩고 학생부부 파사와 후랑스와즈, 그리고 엠마누엘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조국교회의 등불이 되어 우리나라가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방문기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지난주일(9일) 저녁, 당회원과 베들레헴 찬양대 등 2백여 명의 성도들은 서울 외곽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라크 평화계단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자이툰 부대원 3천8백여명 가운데 이날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은 장병은 5백여 명으로 저녁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장병들이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도착할 즈음 이들은 자이툰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감람나무란 뜻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방주에 타고 홍수를 피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앙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준 비둘기처럼 우리 자이툰 부대가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부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군종참모인 이재은 목사는 부대를 소개했다.

이종윤 목사님은 민수기 11장12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출애굽을 한 모세와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설교 후엔 오랜 군 생활과 파병 경험을 가진



우리교회 이갑진 장로가 “먼저 여러분은 기도하는 병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개인화기로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처럼 여러분도 군복에 태극마크를 단 한국을 대표하는 군인입니다. 현지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격려의 말을 했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지난 2월말 이곳에 집결한 뒤로 하루하루 출정명령이 떨어지지만을 기다리고 있다. 파병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림에 지친 이들에게서 울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위문금과 위문품 그리고 환송예배는 다시금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이 황무지라도 같은 이라크 땅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겠다.

취재: 김민철 사진: 오주명(편집부)

등정

- 개업: 진호식 성도(최경애 권사 손자) 동산치과의원 전화 2267-7580
· 오종원 성도 김연화 집사 우리들내과 개인 전화: 3663-6841
- 이사: 2교구 김광철 집사 주희현 집사 930-8721
· 7교구 김중윤, 이종동 집사: 은평구 녹번동 89-23 현대백스빌 A-302 전화: 3157-0688
· 8교구 이태운 권영희 성도 - 노원구 상계9동 주공1406/1404호 전화 933-8519
· 11교구 임광식 장로 노영숙 권사 가정 송파구 가락동 79 롯데케스파이 힐 2903호
· 11교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송파구 신천동 진주@6-302
- 표창: 이강로 성도(7교구 이현주 집사 부군, 기획예산처 서기관) 모범공무원 대통령 표창
- 주간 식당봉사: 베드로남선교회(5월 16일) 바울남선교회(5월 23일)
- 급우의 식사: 강승일 성도(김우숙 권사) 가정, 강경술 성도(전원순 권사) 가정 -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2004 찬양대 세미나 강사는?

2004년 찬양대 세미나가 오는 5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강사는 김승남 목사로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성악을 공부한 후 클레아몬트 신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예배와 극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파송 선교동역자로 현재 연세대학교 교목실 협동교목 및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에서는 세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8년 동안 미주 목사 성가단을 지휘하였을 뿐 아니라 찬양대 지휘 경력 30년과 특별히 김자경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자와 한국마드리갈 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모든 찬양대원은 물론 특별히 예배와 찬양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가를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집사·권사 선택에 하나님의 간섭이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